



2011 **1**

마산고등학교 제21회 동창회

통권 제314호

발행:조정웅 / 총무 :구해룡 016-9567-6797

편집:제갈선광 010-5147-4925 / mail : wing44@paran.com

■■■
퇴임사

머슴살이를
마무리하면서...

] 조정웅 / 본부동창회장



백호해가 저물어 가고, 토끼해가 솟아오르고 있다. 백호 해는 호랑이 값을 한 것 같고, 토끼해에는 토끼 값을 어떻게 할 텐가 생각을 키우게 한다. 어느덧 머슴살이 약정기간도 만료되어 두서없이 필을 들었다.

호랑이 해여서인지 서해바다 두 사건으로 4대 강국이 뜨거운 외교전을 펼쳤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론 세계적 금융경제 위기로 세계 20대 강국 정상들과 400대 기업 총수들이 서울 한자리에 모여 세계경제 부활을 위한 활동규칙을 열띤 분위기 속에서 협상하여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으니, 호랑이해 값을 했다고 본다. 한 해 동안 동창회 머슴살이도 그런 어려운 경제분위기의 회오리 속에서 계속되어 왔다고 본다.

퇴직 후 처음으로 동창회 일을 맡아 한두 해 동안 머슴살이 해보니, 학교 공직생활하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꼈다. 재직 중에 맡은 바 공적인 책무 때문에 동창 벗님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었던 아쉬운 점들을 솔직히 털어 놓아야 맘이 편하겠다. 송구한 마음을 안고 세월을 지나왔다.

그동안 동창 벗님들에 궁금함이 열 가마니였는데, 어쩌다 불현듯 예비지식도 없이 갑자기 몇몇 벗들의 권유로 머슴살이를 시작하게 됐다. 모처럼 해보는 머슴살이를 조금 새롭게,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해 보고자했으나, 나이 들어가면서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는가 보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공

직의 조직 활동처럼 의도한 대로 일의 진행과 마무리들이 깔끔하고도, 명료하게 잘 정리가 되지를 앓았다.

뒹뒹이 모자라고, 얇이 부족한 머슴을 많이 깨우쳐주면 한다. 새경은 아무리 깎아도 이익을 제기하지는 않겠다. 넓게 산과 들로 활동을 펴 보려 했으나, 우선 술 먹는 것도, 노래 부르는 것도, 몸 흔드는 것도, 재담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함을 실감하곤 했다.

그동안 서울, 부산 지역의 회장, 총무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아낌없이 보내준 점에 깊이 감사함을 우선 전하고 싶고, 그리고 전국 각 지역에서 개인적으로 전화로, 우편으로, 기타 정보망으로, 좋은 정보자료들을 보내주어 무난히 명부수첩 발간사업을 매듭 할 수 있게 되어 고마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첫 해외 등산 활동을 실행한 <21 목요산악회>, 금년도 창립한 <21 기우회>의 활동들도 금년도 보다 새해에는 더욱더 폭넓은 공감대와 협력분위기를 조성해서 더 큰 발전 있기를 소망해 보고, 여러 어려움을 감수하고도 추진하고 있는 두 회장님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아무튼 이 머슴으로 인해서 한 해 동안 영농 실적도, 보람도, 흥미도 없이 세월만 보냈다고 생각한다.

어떤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 사회의 역사도 그 생애 전부가 항상 밝았다하면 허풍쟁이 꾸민 웃음꺼리가 될 것이고, 역사에는 밝음과 어둠이 함께 있음이 진실이다. 올해는 어둡다가는 다음 해에는 밝음이 어느 땐가는 올 것이 틀림없으니까, 희망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동시대에 같은 국토 내에서 총살통치상황 아래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2천4백만 북한 국민들의 처지보다는 얼마나 큰 행운일까. 꼭 잊지 않아야 할 일이다.

가족 분들과 함께 아름답고, 멋있는 연말연시의 시간계획을 구상하여, 복락을 누리 주었으면 하고 기원해 본다.

동일한 교사와 운동장에서, 은사님 아래에서, 3년간 함께 배우며, 꿈을 가꾸었고, 호흡을 같이하며 성장했기에, 우리는 영원한 동창생이라 불릴 것이다. 피할 수 없는 동창생이니까 백호 해의 실농을 포용적 자세로 가다듬어 주길 바라며, 머슴살이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새해에는 동창생 벗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며, 우리 마고의 교육정신(자율, 협동)을 잊지 말아 주시고, 모교의 품격을 복돋우는 데에 동참해 주시도록 당부 드리며, 이만 필을 놓습니다. *

東洋名句

吞舟之魚 不遊支流

(탄주이어 불유지류) (열자)

배를 한입에 삼킬만큼 큰 물고기는 강의 지류에서 놀지 않는다.



한해가 저물어 간다. 이룬 것과 이루지 못한 것의 대차대조가 확연히 두드러지는 다사다난한 ‘경인년’ 연말이다.

성실한 생활 활동으로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돌아보면 이룬 것보다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마음이 숙연해진다. 그래서 새해에 대한 각오를 하고 모든 것에 다시 도전하는 마음으로 1년을 설계해야 한다.

언제나 항상 같은 회오와 각오가 1년 단위로 되풀이 되면서 우리네 인생은 사람마다 다른 내용으로 뿌리가 깊어지기 마련이다. 하루하루, 한해 한해,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의 패턴은 동일하지만, 하루 24시간 단위로 자고 일어나 활동하는 사이클, 이것이 모여 한 달이 되고 일 년이 되고 평생이 된다.

무릇 하루하루가 죽는 날까지 동일하게 되풀이된 종심의 나이을 앞둔 삶의 길목에서 짐짓 어느덧 와 닿을 듯한 예감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네 현실이기도 하다.

지난 경인년 12월22일은 선친이 영면한지 21년째 되는 휘일, 기제사날이었다. 제사 지낼 때 올리는 지방에 ‘顯考學生府君神位’라고 명시하듯 인간의 존재성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배우는 ‘學生’이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하였다. 그러니 하루하루 세속을 겪으며 제대로 배우고 학생으로서 신분에 맞게 인생공부에 충실해야 하는 우리네 도반(학문의 동기)들이다.

본부회장단의 1년 단위가 끝나고 시작되는 송년의 밤을 자축하기 위해서 여론수렴, 의견을 조율하고 상호협조하면서 현지답사하여 김정수 동문 부인이 운영하는 ‘바다여행’ 대형룸으로 결정하였다.

송년의 밤을 축하해주기 위해 먼 곳에서도 참석한 동창부인에게 고마웠고, 아름다운 밤, 참 좋은 밤에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시종일관 부인들의 함박 웃음꽃이 피어나기 마련이다. 특히 김인숙 부인의 예의바른 친절과 서빙, 화사한 얼굴의 눈웃음에 모두다 마음이 동하여 열기가 가득한 송년의 밤이 되었다.

출장뷔페의 정갈한 음식과 좋은 술과 안주 그리고 신선하고 맛깔스러운 과일은 풍성하였으며 노련한 경험의 사회자 우용태의 멘트로 노래에 맞춰 더욱 흥을 돋구게 하였으며 푸짐한 경품추첨도 하였다.

묵은해와 새해라는 인위적 구분에 붙들리는 것은 우리들 앞에 펼쳐지는 삶의 한해를 산뜻하게 배웅하고 맞이하는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이 절실하기만 하다.

참석자

구해룡 김기정 김기현 김석백(2) 김성규 김용인 김정수(2) 김채열 김태욱 박영환
 배종길 변재국(2) 우용태(2) 이무일 이아인 이종섭 이종량 장영의(2) 정정용 정종필
 박소학 조정웅 지해경(2) 황희생(2)

본부동창회 수입지출내역

2010년 12월

| 수입 | | 지출 | | | |
|------------|-----------|--|--------------|-----------|----------------------|
| 적요 | 금액 | 비고 | 비고 | | |
| 회비 | 2,070,000 | 김기정 김방태 김석백 김선규 김정수 김채열 심용보 안인준 오차근 이상호 최광수 황희생 각15만원 이복렬 7만원 배복기 이무일 재갈선광 전기용 각5만원 | 회보 | 200,000 | 인쇄(봉투포함) |
| | | | | 60,000 | 발송 |
| | | | 송년회 | 720,000 | 출장뷔페 40명분 |
| | | | | 440,000 | 바다여행 |
| | | | | 30,000 | 송년의 밤 현수막 |
| | | | | 40,000 | 선물용가방(40매) |
| | | | 수첩제작 | 2,300,000 | 완불 |
| 경조 | 100,000 | 이영배 상가 | | | |
| 협찬 수첩제작 | 1,240,000 | 재경동창회 80만원 재부동창회 44만원 | 식품 | 60,000 | 동창회사무실 |
| | | | 화장지 | 7,000 | 동창회사무실 |
| 광고 | 30,000 | 시민외과(김영) | 가스 | 56,000 | 동창회사무실 2통 |
| 모금합 | 200,000 | 동창회사무실 | 정수기 | 19,900 | 정수기렌탈 |
| 송년회비 | 450,000 | 22명X2만원 1명X1만원 | 전기난로 | 200,000 | 동창회사무실 2개 |
| | 100,000 | 이종섭 특별회비 | 화분 | 50,000 | 박강정 전시회 |
| 현물협찬 | | 조정웅 협찬 각40개 그릇, 달력, 탁상달력 다이어리, 와인 2병 | 회비삭제 중복기록 | 350,000 | 오차근 황희생 각15만원 |
| | | | | | 황동철 5만원 |
| | | | | | 09년~10년도 결산보고서 참조 |
| | | 박필근 타월 40개 | 관리비 | 90,000 | 동창회사무실 |
| | | 권국주 달력 50개 | | 수당 | 150,000 |
| | | 김정수 멀치5포 | | | |
| | | 김인숙 지갑3개 | | | |
| 총동창회 양주 2병 | | | | | |
| 출장뷔페 와인 2병 | | | | | |
| 수입계 | 4,090,000 | | 지출계 | 4,872,900 | |
| 전기이월 | 1,005,073 | | 차기이월 | 222,173 | |
| 합계 | 5,095,073 | | 합계 | 5,095,073 | |

꽃동네꽃집

대표 泰峯 김 용 인
019-205-3704

화환 꽃바구니 생화 화분 -

마산시 회성동

293-3311(팩스겸용)

255-3704



12월20일, 18시30분에 범어사 밑 동지집에서 한해를 뒤 돌아보고 앞일을 설계하는 송년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참석을 독려하는 홍보활동에 비해 참석자가 기대한 예상에 벗어나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런 대로 유익하고 즐거운 모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이년을 쫓아내고, 새년을 들며 싱싱한 새맛을 만끽 하면서 동창회 모임에도 애착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주시기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

김수용(2) 김준태(2) 김지남(2) 김효석 나길보(부인만 참석) 박진형(2) 박청길 윤성업(2) 이강복(2) 이의승 정현경 조영민(2)조창식(2) 조창제 천성태 최진화



❖ 김학영 동문

동문의 새 휴대폰번호입니다.
010-6253-3395

❖ 안병근 동문

재경동창회 송년의 밤 행사에서 동창회 발전기금으로 거금 200만원을 쾌척 하였습니다.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 이영배 동문

1986년도 본부동창회 회장직을 맡았던 동문께서 그동안 앓아오던 지병으로 지난해 12월31일 마산의료원에서 영면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이항구 동문

동문의 자당께서 지난해 12월30일 마산의료원에서 영면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본부동창회 송년의 밤 행사에 달력과 다이어리, 티월 등을 협찬해주신 재경 권국주 동문과 빅필근 동문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벤엘플라워

대표 조 종 석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 426-2
055-329-6747
011-716-6747



2010. 12. 21, 용산역 앞에 있는 용사의 집 모란홀에서 송년의 밤을 자축하였습니다.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룬 자리에 협찬금까지 듬뿍한 선물에 모두들 즐거운 송년의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참석자

권국주 김덕조 김영웅 김종화 김창환 김태조 김학영 문동영 박광지
 박금준 박박중 박용시 박진석 방학기 변판석 서종성 성재삼 송일성
 안병근 유찬중 이상환 이석우 이실 이영규 이영우 임홍무 전승치
 제정택 조용석 조재호 주유삼 하무정 허양도 허호 홍창우
 이상35명

제경동창회 송년의 밤 행사에서 인병근 동문께서 동창회 발전기금으로
 기금 200만원을 쾌척하였습니다.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잘 못 읽기 쉬운 漢字(人)

| | | |
|--------------------|--------------------|-----------------|
| 幹旋 (O)알선, (X)간선 | 謁見 (O)알현, (X)알견 | 軋轢 (O)알력, (X)알륵 |
| 暗礁 (O)암초, (X)암축 | 隘路 (O)애로, (X)익로 | 冶金 (O)야금, (X)치금 |
| 惹起 (O)야기, (X)약기 | 掠奪 (O)약탈, (X)경탈 | 於兔 (O)오토, (X)어토 |
| 濾過 (O)여과, (X)로과 | 役割 (O)역할, (X)역활 | 軟弱 (O)연약, (X)나약 |
| 厭惡 (O)염오, (X)염악 | 永劫 (O)영겁, (X)영각 | 囹圄 (O)영어, (X)영오 |
| 領袖 (O)영수, (X)영유 | 嗚咽 (O)오열, (X)오인 | 惡寒 (O)오한, (X)악한 |
| 誤謬 (O)오류, (X)오륙 | 渦中 (O)와중, (X)과중 | 歪曲 (O)왜곡, (X)부곡 |
| 外艱 (O)외간, (X)외난 | 凹凸 (O)요철, (X)요돌 | 樂水 (O)요수, (X)낙수 |
| 窯業 (O)요업, (X)질업 | 要塞 (O)요새, (X)요색 | 邀擊 (O)요격, (X)격격 |
| 容喙 (O)용혜, (X)용탁 | 遊說 (O)유세, (X)유설 | 六月 (O)유월, (X)육월 |
| 吟味 (O)음미, (X)금미 | 泣涕 (O)읍체, (X)읍제 | 凝結 (O)응결, (X)의결 |
| 議論 (O)의논, (X)의론 | 義捐 (O)의연, (X)의손 | 以降 (O)이강, (X)이항 |
| 已往 (O)이왕, (X)기왕 | 弛緩 (O)이완, (X)지환 | 移徙 (O)이사, (X)이도 |
| 罹炳 (O)이병, (X)나병 | 罹患 (O)이환, (X)나환 | 溺死 (O)익사, (X)약사 |
| 一括 (O)일괄, (X)일할 | 一擲 (O)일척, (X)일정 | 剩餘 (O)잉여, (X)승여 |
| 一切 (O)일체, (X)일절-명사 | 一切 (O)일절, (X)일체-부사 | |

제갈선광 포토갤러리 : <http://wing91.tistory.com>

옛날에는 몇 키로 지점에서 좌회전하고 또 어디서 우회전하고 상세하게도 안내를 했지만 이제는 네비게이터라는 길동무가 있으니 모두 생략을 하고 저도 연륙교를 지나 1.2km 들어가면 하포리의 포구가 얇전하게 앉아있고 말밭굽 모양의 포구를 빙 돌아 끝지점에 닿으면 들머리가 나온다.

종주를 한다면 연륙교 쪽으로 하산하게 되므로 주차는 포구의 입구에 하는 것이 좋겠다. 포구 끝자락으로 돌아들면 저도비치로드 종합안내도가 서있어 오늘의 산책코스를 대충 입력해 놓는다. 제1전망대까지는 1.5km, 제2전망대는 1.2km, 사각정까지 0.3km, 코스분기점을 지나 제1, 2, 3 바다체험장까지 1.8km, 코스합류점까지 0.85km, 연륙교까지 1.4km, 주차장까지 1.2km 해서 대략 8km정도로 2시간30분쯤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설p는 마음을 안고 나무테크계단길을 올라서면 여느 둘레길처럼 잘 정비되어 있고 연두색 펜스로 둘러진 길에는 철조망의 삭막함보다 훨씬 마음이 포근해진다. 조금 좁아지는 산책로는 숲이 터널을 이루었고 잔잔한 바다를 끼고 도는 산책로는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하지만 점점이 떠 있는 양식장의 하얀 부표가 눈에 거슬리는 게 약간 흠이다. 그러나 산속 숲길은 마음을 다독여 주고 달래주는 힘이 있어 문제가 되지도 않는다.

사람들이 몰려있는 제1전망대에 서면 넓은 바다가 짝 펼쳐져 탄성이 절로 나오고 날씨가 맑으면 정면으로 거제 하청면의 섬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고성 동해면이 있다지만 오늘따라 안개가 깔려 섬들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망망대해처럼 느껴져 가슴이 후련해지고 마음은 벌써 살이 찐다.

제1전망대까지는 13분이 소요됐고 제2전망대까지는 10분이면 충분하다. 제2전망대를 지나면 약간 오르막에 큰 돌탑이 차례로 반기고 7분 만에 사각정을 만난다. 계속된 오르막에는 돌탑들이 줄줄이 서서 힘을 내라고 응원을 해 주지만 땀은 좀 흘러야 한다. 내려서면 제1 바다체험장까지는 0.3km 남았다고 알려주며 시원한 바다가 눈에 들어와 그동안 흘렸던 땀까지 식혀준다. 5분만 내리면 바다체험장을 만나는데 조금 힘들어도 내려갔다 올라오는 수고로움은 맑디맑은 깊은 바닷물이 보람을 안겨 주기도 한다. 기분 좋게 10분을 더 달리면 제2 바다체험장을 만나지만 이곳에는 그냥 일반 바닷가의 풍경이라 눈길만 한번 주고 지나친다. 그리고 보니 처음 출발할 때는 주차할 곳이 없을 만큼 차량도 많고 사람들도 엄청 붐볐는데 이제 보니 바다체험장길부터는 발길마저 똑 끊기더니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 흙먼지가 풀썩거리지 않아 좋고 소음도 없으니 절벽아래의 푸른 바다와 함께하는 호젓한 산책로는 기분을 들뜨게 해 주고도 남는다.



저도의 용두산과 둘레길

(1) 장정치

용두산하면 부산이 생각나고 따라서 용두산 엘레지가 자동으로 흘러나올 만큼 유명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저도의 용두산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경관만은 결코 밀리지 않는다. 푸른 바다와 함께 해안을 끼고 도는 둘레길은 어찌면 늦가을이나 겨울이 더 깊은 맛을 지니고 있을지 모른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바다의 푸른 색깔은 더 짙어지고 파도가 부서지는 하얀 포말은 눈부시게 아름다우니 말이다. 그러니 무학산둘레길, 비음산둘레길

등 지역마다 여러 둘레길이 있겠지만 그런 곳은 가보지 않아도 후회할 일 없겠으나 이곳 저도의 둘레길을 맛보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하다가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 마음변하기 전에 얼른 길을 나선다.

준비도 없이 서둘러 길을 떠나 우선 가는 길에 구산면 사무소에 들러 문의를 하니 연륙교에 가면 안내판이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고 한다. 연륙교를 지나면 안내판이 어디쯤 큼지막하게 있을 거라 짐작을 하고 서행을 하며 아무리 주위를 살펴도 안내판은 보이지 않는다. 작은 고개에 올라서는데 마침 젊은 여인 셋이서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며 가볍게 오르고 있다. 창문을 내리고 산책코스 출발점이 어딘지 물으니 우리도 초행이라 사람들이 다 이리로 가기에 무작정 가본다고 막연한 대답이다.

젊은 색시들이 어찌면 저렇게 예쁘게 보일까! 태워서 산행을 같이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보 스님! 나 방귀 한데 더 낄까?”

내가 스님은 아니지만 “오빠! 나 방귀 한 번 더 ……” 이렇게 나올 줄 누가 아노. 달콤한 상상을 하지만 상상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포리의 포구가 바로 눈에 들어와 그만 기분을 잡치고 만다.

7쪽에 이어짐-

2011년 1월 월례회 안내

월례회

일시 : 21일(금) 오후 6시
장소 : 곱돌위생삼겹(223-9969)
삼성생명 건너 옛 둥근달



부인회

일시 : 21일(금) 12시 00분
장소 : 수류화개(구산면 석곡리221)
집결 : 하성이불(222-3003)